

렌가(連歌)

렌가는 여러 와카 시인이 함께 와카(일본 전통 정형시)를 주고받으며 읊는 형식의 노래로, 14 세기부터 19 세기에 걸쳐 특히 궁정 사회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첫 와카 시인이 5·7·5 의 17 자로 와카의 앞부분을 짓습니다. 뒤를 이어 다음 와카 시인이 7·7 의 14 자로 뒷부분을 짓습니다. 이어서 다음 와카 시인이 5·7·5·7·7 의 형식으로 완성된 앞선 와카를 이어받아 끊임없는 상상력을 더해 와카를 읊어 나가면서 일련의 연속적인 와카가 완성되어 갑니다. 이렇듯 렌가에는 특별한 재치와 해박함이 필요했습니다. 렌가는 자연, 계절, 사랑 등 이외에도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자이후 덴만구에서 렌가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신격화한 덴진을 모시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신사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와카 시인이 늦은 밤 잠이 들자, 덴진에게서 렌가의 첫 소절을 계시 받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렌가를 즉흥으로 읊는 것은 단순히 재치와 지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라고 여겨졌으며, 작품은 후세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곳에는 1598 년에 기록되어 꿈에서 계시 받은 렌가라는 뜻의 두루마리인 ‘몽상(夢想) 렌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화나무 그림으로 꾸며진 본문은 1382 년에 개최된 렌가 모임에서 지어진 1,000 구의 렌가입니다.